

★ 2020년 9월 19일 월례발표회(동국대학교) ★발표자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교과서명:『中國歷史』七年級下冊(인민교육출판사, 2019,3쇄)(2016년 교육부검정)

제2단원 요송하금원시기 : 민족관계발전과 사회변화

제 12 송원시기의 도시와 문화

- **변화한 도시생활** : 송원시기 매우 많았던 대도시는 상업, 무역, 문화, 교육 등 방면에서 크게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생활 방면에서도 풍부하고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송시기 개봉, 남송시기의 임안, 원조시기의 대도는 모두 당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도시들이었다.

북송의 개봉에서 제일 변화했던 대상국사(大相國寺)는 장소가 커서 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달마다 이곳에서 여러차례 묘회를 열었다. 사찰 안팎에서는 사람들이 조수처럼 밀려들었고 여러 가지 상품교역을 진행하였을 뿐 아니라, 꼭두각시 놀이, 검무, 잡기 등 각종 공연이 있었다. 정월 대보름에는 대상국사의 대전 앞에 황실악대가 연주할 수 있는 장막을 설치하고 관객들을 끌었는데 대단히 북적거렸다.

도시가 번영함에 따라 송대의 시민계층은 부단히 강대해졌으며, 시민들의 문화생활도 풍부해지기 시작했다. 개봉시 내에는 오락과 상업을 겸하는 장소가 매우 많았는데 이를 ‘와자(瓦子)’라 불렀다. 규모가 큰 와자는 몇천 명까지 수용할 수 있었다. 와자에는 전문적으로 공연할 수 있는 ‘구란(勾欄)’ 이라고 하는 많은 울타리를 만들었다. 구란에는 상업광고가 매우 많았는데, 각양각색의 상품들이 눈이 부시도록 많았고, 수많은 예능인들이 여기서 기예를 팔아 생활하였다. 예를 들면, 이야기꾼, 노래하는 사람, 잡극 공연하는 사람, 곡예 부리는 사람, 공다루기를 보여주는 사람들로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다. 와자에는 많은 노점들이 있었는데, 음식, 약재를 팔거나 골동품, 서화들을 팔았고, 또한 머리를 깎고 관상을 보며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떠들썩하였다. 남송시기의 임안의 문화 오락사업이 더욱 발달하여 성안에 대와(大瓦), 중와(中瓦), 하와(下瓦), 남와(南瓦) 등 여러 곳이 있었고, 성밖에도 십여 곳에 와자들이 있었다.

송원시기 잡극 공연의 주요 형식은 설창, 꼭두각시 놀이, 잡기, 가무 등 곡예를 포함한 잡극이었다. 이 잡극들은 대도시와 지방의 군, 읍의 시장, 변화한 거리, 구란와사 등의 장소에서 공연되었다. 원조가 수립된 후 원잡극은 대도를 중심으로 한 북방지역에서 흥성하기 시작하였다. 원조가 남북을 통일한 후 원잡극은 남방에 전해져 공연활동들이 도시와 농촌의 각지에 널리 퍼지면서 광범위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송조 때 지금의 음력설인 춘절, 정월대보름, 추석 등 전통명절이 모두 있었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다.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고, 서로 새해인사를 나누며, 정월대보름에 장식한 등롱을 걸기도한다. ‘배놀이극’을 하고, 단오절에 쫄쫂리를 먹고 용주 경기를 하는 등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송사와 원곡

, 사(詞)는 일종의 신체시가(新體詩歌)로서 구절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 장단구라고도 하는데, 노래를 부르기에 편하였다. 사(詞)는 이미 당조시기에 나타나 오대시기를 거치고 남송, 북송시기에 이르러 큰 발전을 가져오면서 송대 주요한 문학형식이 되었다.

매 수의 사마다 악보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격식을 갖추었는데 이를 사패(詞牌) 라고 하는데, 『념노교(念奴橋)』, 『만강홍(滿江紅)』 『접련화(蝶戀花)』 등이 있다.

사의 내용은 처음에는 대부분 여성이 이별에 대한 슬픔과 원망의 심경을 혹은 달빛아래 경치를 묘사하였지만, 송조때 이르러서는 비교적 큰 변화를 가져와 스타일이 다양해지고 내용이

광범위해졌다. 송조시기에 사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걸출한 사인으로는 소식(蘇軾) 이청조(李清照) 신기질(辛棄疾) 등이 있었다.

북송의 문학가인 소식은 사의 발전에 뛰어난 공헌을 하였다. 그는 사의 창작을 개진하여 사의 경계를 넓힘으로써 사의 격조를 높였다. 그의 사풍은 호탕하고도 고상하여 풍경묘사와 서정, 의론 등과 결합하여 사람을 황홀하게 하고 정감을 불러일으키는 예술의 경지에 도달했다.

여성 사인인 이청조의 사풍은 완곡하고, 섬세하며 아름다웠다. 그의 작품은 북송의 멸망을 끝으로 이전엔 주로 부부간의 진지한 감정을 다루었지만, 이후의 작품은 피와 눈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유리하며 떠다니는 생활의 묘사를 통해서 당시 전란이 가져온 재단을 반영하였고 깊은 우환의 감정을 묘사하여 당시에 비교적 큰 영향을 일으켰다.

남송의 신기질은 소식의 뒤를 이어 사의 호방한 풍격과 나라에 보답하는 감정을 계승하여 사의 경지를 보다 웅장하게 넓혔는데 서정과 경물묘사 서사, 의론에 있어서 기세가 웅대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사의 사회적 기능과 문학사에서의 지위를 한층 더 높였다.

원조시기에 잡곡이 유례없이 발전하면서 원곡이 출현했다. 원곡은 산곡과 잡곡, 남희 등을 포괄하였다.

원곡은 음악, 가무, 동작, 대사를 유기적으로 결부한 종합적인 예술이다. 원조시기에 잡곡작가가 200여명, 극목록이 600여종 가량 있었는데 현존하는 것은 150여종이다. 원대의 가장 우수한 극작가는 관한경이다. 그는 일생동안 수많은 극본을 창작하였는데 지금까지 전해오는 극작품이 10여종이나 되며 대표작은 비극 『두아원(竇娥冤)』이다. 관한경과 함께 이름을 날린 잡극작가로는 마치원(馬致遠) 정광조(鄭光祖) 백박(白樸) 왕실보(王實甫) 등이 있다. 관한경, 마치원, 정광조, 백박 4인은 명대 이후 “원곡4대가”로 불렸다.

○ 사마광과 자치통감

북송의 저명한 사학자이자 정치가인 사마광이 편집을 주관한 『자치통감』은 편년체 통사의 거작이다. 300여만자에 달하는 이 역사책은 전국시대부터 오대까지 1,300여년의 역사를 기술하였다. 『자치통감』이라는 책 이름의 뜻은 “옛 일을 거울로 삼아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즉 역사의 득실로부터 경험 교훈을 얻어 통치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마광의 『자치통감』과 사마천의 『사기』는 중국 사학의 불후의 거작들로 그들은 후세사람들에 의해 “사학의 두 사마(司馬)”라 불렸다.

제 13 송원시기의 과학기술과 중외교통

활자인쇄술의 발명

우리나라 수당시기에 발명된 조판인쇄술은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였다. 요, 송, 서하, 금시기 도서출판이 매우 성행하였는데 이로 인해 조판인쇄술이 한층더 발전하였다. 그러나 조판인쇄에서 판을 새기는 작업은 손이 많이 가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새긴 판으로는 책 한권 밖에 인쇄할 수 없었다. 다년간의 탐색을 기초로 송대에 인쇄술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루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활자인쇄술의 출현이다.

활자인쇄술은 북송시기의 장인 필승이 발명하였다. 그는 찰흙으로 글자를 빚은 다음 불에 구워 자형이 단단해지게 하였다. 판을 제작할 때 네 면에 테두리가 있는 철판에 송진이나 밀랍, 종이재 등을 뿌리고 잘 구워진 자형을 철판에 배열하여 판을 만든 다음 불을 사용하여 철판에 있는 송진을 녹이면서 글자판을 눌러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책을 인쇄할 수 있었다. 책을 다 인쇄한 다음 다시 송진을 녹여 찰흙으로 빚은 글자를 뜯어 내면 또다시 조판할 수 있었다.

이 후 솜씨가 좋은 장인들이 목활자를 발명했다. 원조때 이르러 저명한 과학자 왕정(王貞) 『농서』에서 목활자 기술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총괄하고 혁신하여 전문배자법(轉輪排字法, 회전

조판법)을 발명하였다. 원대 중기에 동활자 인쇄가 나타났다. 활자인쇄술은 인류문명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13세기 활자인쇄술은 조선에 전해지고 후에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에 전해졌으며 또한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에 전해졌고 후에 몽골인들의 서정(西征) 등 경로를 통해 유럽에 전해졌다.

나침반, 화약의 응용

중국은 고대에 오래전부터 자석이 남쪽을 가리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전국시대 사람들은 천연자석을 이용하여 남쪽을 가리키는 도구를 만들었는데 이를 “사남(司南)”이라고 불렀다. 사남의 형태는 국자와 비슷하고 동으로 만든 사각평 모양의 지판에 놓았는데 지판주위에는 24개의 방위가 새겨져 있다. 사남이 매끄러운 판 위에서 돌아다니다가 멈출 때 국자의 손잡이가 가리키는 방향이 곧 남쪽이었다.

송대에 인공자석으로 남쪽을 가리키는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이 자성을 띤 쇠바늘을 사발의 가장자리에 놓아두거나 혹은 실에 달아 공중에 매달아두면 바늘은 재빠르게 남쪽을 가리킬 수 있었다. 후에 사람들은 이런 자성이 있는 쇠바늘을 도수가 새겨져 있는 판에 고정시켜 나침반을 만들었다. 북송 말년에 중국의 해선은 나침반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나침반은 중국 해선에 탑승한 아랍 상인들에 의해 아랍국가에게 전해졌고 후에 또 유럽에 전파되면서 세계의 원양항해 기술의 발전을 크게 촉진시켰다.

당대에 중국인들은 이미 화약을 발명하였다. 당대 말기에 화약은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송원시기에 이르러 화약무기들은 광범위하게 전쟁에서 사용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주로 화약의 특성을 이용하여 폭발성있는 무기를 제조하거나 관형(管形) 화기(火器)를 제조하였다. 금나라 사람들은 송인들에게 화약무기를 제조하고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 몽골사람들도 금과 송을 멸망시키는 전쟁에서 대량의 화약무기를 사용하였다. 원대에는 또 금속통으로 대나무 죽통을 대체하여 화총을 발명하였는데 이는 이전의 돌화창(突火槍)보다 위력이 컸다.

중국의 화약과 화약무기는 13세기 아랍지역에 전해지고, 14세기 초에 또 아랍인들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다. 중국에서 발명한 화약과 화약무기는 유럽에 전해진 후 유럽의 화약무기 제조와 전투 방식에 거대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유럽사회의 변혁을 추진하였다.